

원高 時代의 換率 展望과 對應 戰略



宋 基 澈
高麗大 經營大 教授 / 經博

국내 전자시장도
개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국내에서의 국제경쟁도 치열해질
것은 뻔하다. 그런 뜻에서 내수 시장의
새로운 각도에서의 개안과 전략
수립도 아울러 깊게 생각해야
할 국면에 온 것으로
보여진다.

1. 9 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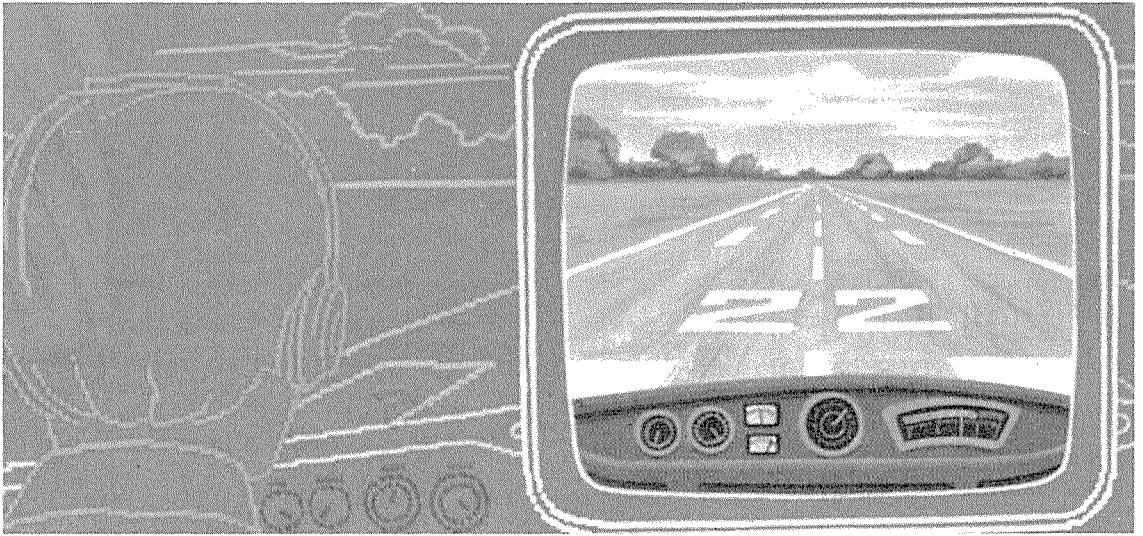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보건데 10年마다 대변
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계
기가 되는 大事件이 일어나는 해가 대체로 9
자나 0 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20世紀에 들어와서도 1910년에 韓·日 合併이
이루어져 日本의 식민지가 되었다. 1919년에는
3·1운동 사건으로 武斷總督統治가 소위 「文化
總督統治」로 이행되었다. 1929년에는 世界 大
恐慌, 1939년에는 第2次 世界大戰 勃發과 光
州學生事件, 1950년에는 6·25動亂, 1960년에는
4·19, 1972년에는 維新宣言, 1979년의 第2次
石油波動과 10·26事態와 12·12事件 그리고 '80
년에는 光州事態와 5·18戒嚴令 그리고 大凶作
등으로 마이너스 6.2%의 저성장을 보였기 때
문이다.

다가올 9 고비는 '89년과 '90년이 될 것이라
고 몇해 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경고를 하면
서 그에 대한 事前對備를 강조한 바가 자주 있
었다.

2. '89 고비

불행하게도 이러한 豫言이 맞아 '89 고비라 할
수 있는 政治, 社會, 經濟的 여러 측면에서 갖
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외 배경을 보면
國際的으로 볼 때엔 先進國 특히 美國의 각종
압력으로 輸出依存的 특히, 對美 輸出依存的,
對日 輸入依存的인 우리 경제로서는 輸出과 輸
入面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美國의
累積財政赤字와 國際收支赤字를 메꾸기 위해서
黑字國家에 각종 경제압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最大 黑字國인 日本이나 中國에 대해서라기 보
다는 '85년 이후 40億弗, 70億弗, 98億弗, 85億
弗로 4년간에 겨우 296億弗의 對美 黑字를 내



이제는 저가에 의한 대량 수출체제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해 나가야 한다.

고 468億弗의 外債를 감축, 아직도 311億弗, 순외채 80億弗 정도를 갖고 있는 外債國인 韓國에 대해서 가장 강도높은 經濟壓力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經濟壓力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對美輸出障壁의 강화, GSP 폐지 對韓 輸入自由化擴大의 강요, 그리고 韓國의 원貨에 대한 급속한 切上 壓力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經濟의 組立産業은 國際水準에 와 있다. 그런데 우리 經濟의 취약점은 部品産業과 素材産業 그리고 엔지니어링 設計産業이 극히 약하다고 할 수 있고, 이들의 상당 部分이 輸入 充當되고 있는데 주로 日本에서 輸入하고 있으며 日本 円貨의 切上和 그들의 시장조작으로 우리에겐 經濟的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원유를 위시한 일부 國際原資材 價格이 예년보다 더 騰貴하여 자원빈곤으로서의 우리 經濟에 많은 經濟的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先進開途國과의 경쟁 後進國들 특히, 中國의 인해 進술적 追越 努力으로 低債, 低換率, 低金利 등을 바탕으로 해서 輸出競爭力을 키워 급속한 신장을 해왔던 우리 輸出産業과 우리 輸出經濟의 萎縮에서 오는 各方面에서의 영향과 부작용이 적지 않아 우리의 '89 經濟 고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經濟는 政治經濟와 社會經濟이며 心理經濟라

할진데, 經濟外的 要因인 우리의 政治的, 社會的 불안요인 역시 '89 經濟에 적지 않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29宣言 이후 大統領 就任까지 여러 政治的 곡절이 있었지만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大統領 就任부터 '88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의 제 2 단계에 있어서는 國會議員選舉를 계기로 與小野大의 政局下에서 民主主義를 뿌리내리게 한다는 과제와 學園紛糾, 勞使紛糾 등을 克服해서 社會安定을 이룩해야 한다는 과제와 '88 올림픽을 최대 규모로 사고없이 질서정연하게 멋지게 치루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다.

이에 제 3 단계로서 올림픽 이후 가깝게는 '89년과 '90년으로 이어가는 기간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政治, 社會的, 經濟的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政治的으로는 우선 各種 特別委員會의 뒷처리, 中間평가 무기 연기 이후의 뒷처리, 남·북통일문제, 地方自治制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너무나도 많다.

社會的으로는 學園紛糾 특히, 勞使紛糾 그리고 地域感情 등 우리 社會를 不安케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社會的 과제가 있다.

또 하나는 經濟的으로 올림픽 이후에도 후유증 없이 지속적인 高度經濟成長, 黑字經濟 그리고 物價安定이라는 우리 經濟의 3大 과제를

'86년 이후 연속 4년 동안 지속되고 '90년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우리의 經濟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89 經濟 고비

'89년의 우리 經濟에 대해서 政府의 목표는 經濟成長 8%, 國際收支黑字 85億弗, 物價 상승 5%로 잡고 있었다. 이것은 '88년의 12%란 經濟成長에 대해서 8%로 잡고 있는 것은 '89년의 經濟成長이 상당한 安定成長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88년의 140億弗 黑字에서 '89년에 85億弗로 黑字目標을 세운건 역시 輸出의 어려움을 감안한 축소 經濟를 내다본 것이다.

우선 '89년에 들어서 經濟外的 요인이 政府에 측과는 달리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게 되었다. 즉 政治的 상황이 在野의 부상과 學園紛糾의 격화와 勞使紛糾가 政·學·勞의 連繫戰略強化로 勞使紛糾가 地域別, 業種別로 격화되고 마치 全國이 總罷業 事態로까지 번진 느낌을 가져와 우리 經濟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다.

금년들어 春鬪가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 勞使紛糾가 勤勞條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政治條件까지 곁들여지다 보니 요구조건이 상당히 복잡해져서 勞使紛糾가 장기화, 과격화, 광역화, 연계화, 다발화, 연중 수시 발생화, 다조 건화라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겨우 3년에 이른 黑字經濟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어 低成長, 高物價化해서 停滯化下的 物價昂騰이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다가 黑字의 大幅 減小化 현상을 보여 모처럼 이룩한 黑字기조가 흔들려 魔의 3,000弗線을 못 넘기고 우리도 中南美病化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적지않게 낳게 하고 있다.

'89년 4월말까지의 經濟현상을 보건데 예상보다는 훨씬 밀도는 低成長에 都·小賣物價는 이미 1.6%, 피부로 느끼는 物價는 상당히 騰貴했으며 國際收支도 1월부터 3월까지의 經常收支 黑字가 '88年 同期의 28億弗에 比해서 55%가 감소된 13億弗에 그치고 있으며 貿易收支는 3월과 4월 모두 赤字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의 여러 여건으로 보아 5월은 勞使紛糾의 진통을 매우 심하게 겪을 것이며 貿易收支는 赤字가 될 것으로 보이고 下半期에 급격한 輸出伸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면 '89년의 黑字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4. 元貨 切上 壓力

이러한 사태진전에 관해서 政府는 낙관론을 펴면서 일시 조정국면에 있음을 강조했었고 學界나 業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開陳하고 우리 經濟의 구조에서 온 것이란 構造改善論을 제기한 바 있었다. 낙관론을 견지하던 政府도 사태의 심각성을 認識함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간 '89년에 들어 美國을 위시한 先進國에서의 輸出障壁과 輸入自由化 壓力 그리고 元貨 切上에다가 國內의으로 볼 때에 賃金引上과 勞使紛糾에 따른 生産 蹉跌에서 低成長, 物價騰貴, 國際收支 黑字 鈍化 현상으로 보여진다.

우리 經濟가 輸出主導型 經濟라 할진대 輸出鈍化가 우리 經濟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輸出鈍化는 高賃金, 部品不足, 國際原資材價 騰貴, 元貨 切上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 중의 주된 요인은 역시 元貨 切上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의 元貨는 '85년말에 美 1弗당 890원 '86년말에는 29원이 切上된 861원 '87년말에는 69원이 切上된 792원 '88년말에는 108원이 切上된 684원으로서 4년간에 206원 정도가 切上된 셈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89년 5월 4日 현재도 666원으로 '89년에 들어와서도 18원이 切上된 셈이다. 물론 이런 元貨 切上이 한편 輸入原資材 價格의 引下로 利得이 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그것은 극히 部分的인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輸出企業으로서의 輸出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런 輸出둔화 현상에 비추어 趙亨 副總理는 美통상법 수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감수하더라도 最終協商過程에서 元貨의 追加 切上이나 지금까지 발표된 農水産物 輸入自由化 豫示計劃 이상의 무리한 개방

확대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강조, 美 財務省長官에게 追加 원貨 切上의 어려움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美 財務省長官은 계속 追加 원貨 切上을 강력히 추구하고 나왔다. 韓國이 1/4分期에 貿易黑字가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追加 원貨 切上이 필요하며 「外換操作國」으로서의 韓國에서 지속적인 원貨 切上의 約束을 받아 낼 것을 議會에 報告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상 원貨 切上이 어렵다는 우리 입장과 최근에 원貨 切上 템포가 느리며 계속 원貨 切上을 요구하고 있는 美國, 또 美國 學界의 일각에서는 걱정하다는 설과 계속 원貨 切上을 500 원臺까지 切上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의 線에서 소폭의 切上은 있을 수 있으나 대폭적인 切上, 예컨대 630~580원 線臺는 생각하기 어려운 線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기대를 해 보기도 한다.

5. 對應戰略

우선 政府의 강력한 환율 철학과 美國에 대한 환율 로비 活動이 積極的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진국 특히 美國에서의 원貨 切上 압력이 강력하게 촉구될 것으로 보고 그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외환정책에 관한 이념 혹은 철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對美 통상협상이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미국측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의 하나가 평소부터 우리가 불공정거래 경제국가가 아니며, 제 2의 日本이 아니라는 認識을 美國 行政府와 國會 그리고 일반 美國 국민들에게까지 미치는 장기적이며 동시에 단기적인 효과있는 로비 활동을 광범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우리 業界와 직·간접적으로 利害關係가 있는 關聯 機關을 動員해서 그들을 오피니온 리더로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장·중기적인 對應 戰略이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 이번 협상에 있어서 開放化 폭은 어느 정도 늘리되 換率 切上은 극소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政府의 대응 전략과 결들여 기본은 業界의 對應 戰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시해서 우선 業界의 對政府 로비 活動이 電子業界 뿐만 아니라 모든 業界를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換率 政策의 확고한 입장을 요구해야 하며 한편 식어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輸出支援 政策에도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業界는 종전의 저가품 輸出戰略이 아니라 고급품 輸出戰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신제품 개발, 품질의 고급화, 디자인 강화 등 제품의 개발에 대한 研究 개발투자를 아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저가에 의한 대량 輸出體制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차별제품 정책과 결들여 輸出地域의 多邊化 政策도 고려되어야 한다. 北方政策과 결들여 그들 國家와의 求償貿易도 긴 眼目으로 볼 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經濟가 조립은 國際的이지만 그에 소오되는 部品, 素材 및 엔지니어링 즉 設計分野가 취약한데 이들의 보완에 힘쓰면서 原價節減 努力이 企業의 모든 면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國內 電子市場도 개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海外에서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國內에서의 國際경쟁도 치열해질 것은 뻔하다. 그런 뜻에서 內需시장의 새로운 각도에서의 開眼과 전략 수립도 아울러 깊게 생각해야 할 局面에 온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産業中 최대 産業이고 최대 輸出産業의 死活이 우리 大韓民國 經濟의 死活이란 관점에서 우리 政府, 企業, 國民의 삼위일체적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중대한 기로에 온 것으로 보여진다. 모두의 각별한 분발이 요망된다.